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 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Haiti 돕기 2차 헌금 안내

- 일시: 1/31 (일) 교중 미사중
- 콜럼버스 교구차원에서 실시되는 Haiti 돕기 2차 헌금 모금에 저희 공동체도 동참합니다. 2차헌금으로 모금된 금액은 교구를 통해 전액 Haiti로 전달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례 회의 안내

- 일시: 1/31 (일) 주일미사 후
- 장소: St. Leo 사제관
- 대상: 전례위원장, 성가대단장, 복사단장

◆ 예비자 교리 안내

- 일시: 2/6 (토) 오후 3시부터
- 장소: 사제관 (St. Leo Church 내)
- 신청문의: 예비자 교리 신청서를 김정일 그레고리오(614-496-3149) 형제님에게 받으셔서, 작성 후 사무담당 (이호근 라파엘, 614-975-7732) 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입교 예식 안내

- 일시: 2/7 (일) 교중 미사 중
- 장소: St. Leo Church

◆ 청년 떼제기도 모임 안내

- 일시: 2/6 (토) 저녁 8시 30분
- 장소: St. Leo Church 사제관
- 떼제기도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안내

- 일시: 2/14 (일) 교중미사 중
-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해 연미사를 가정별로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예식 안내

- 일시: 2/17 (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예식이 올해 부터 정상적인 날짜에 거행됩니다. 많은 신자들께서는 잊지마시고 꼭 예식에 참여하셔서,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을 통해 사순시기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주보 광고주 모집

-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본당 주보 개편을 위해 주보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본당신부

◆ 황석두 구역모임 안내

- 일시: 2/6 (토) 오후 6시30분
- 장소: 고상식 야고보 형제님택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5,1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2.00
교 무 금	\$2025.00

- ◆ 교무금: 이현, 한석철, 이진학, 서경환, 윤혜경, 김영숙, 김성하, 최혜윤, 윤동희, 김예슬, 박석현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4주일 January 31, 2010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 방문> 11세기, 채색 삽화, 국립 박물관, 뉘른베르크, 독일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1,4-5,17-19~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화답송



주님 제 -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 이 다

제 2 독서 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12,31-13,30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쁜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복음 루카 4,21-30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은 아니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365단 4명	30,007단 222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65단 4명	22204-01/24/10 (307주)

♣ 총누계: 224,995단 12,857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31/10	2/7/10	2/14/10	2/21/10
해설자	박귀영	고상식	김오경	안유신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바다의 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64 ♫ 봉헌: 217
♫ 성체: 171, 170 ♫ 파견: 39

하느님 찾기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 수도 준관구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도회에 들어와 살아 온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과 신중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새로운 것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던 수사님들도 그냥 다 허물 많은 인간으로 보일 뿐입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서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피정 강의할 때가 참 힘듭니다. 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제 삶을 훤히 다 아는 수사님들께 훈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탄복하면서도 그분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을 알고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저 좋은 말이라고 여길 뿐, 그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만 볼 수 있었지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느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볼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언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느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럴만한 믿음과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내가 늘 보아왔고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 가족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안에서 존경과 사랑과 일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주신 그분의 선물,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안 내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 장	연락처
상지의 옥좌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하늘의 새벽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

◆ 2010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안내

- 1년 구독료: \$40
- 신청방법: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문의바람
- 전화번호: 614-218-1702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